

백제 사찰 기와 한눈에 본다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자취'展

경희대 박물관서 6월 30일까지

왕후사 금강사지 용정리사지 등의 사찰 기와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경희대 중앙박물관이 '백제기와 -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자취'展을 6월 30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기와의 종류와 제작기법은 물론 백제기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기와의 일괄적 이해 △시기별 백제기와의 특징 △백제기와와 다른 나라의 기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첫 코너에서는 기와의 용도, 종류 기와의 제작 도구와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시기별 특징으로는 △한성기-서울 풍납동 출토 수막새 △용진기-공주 공산성, 정지산 유적 출토 수막새 △사비기-부여 지역에서 수습한 경희대 소장 기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비기에서는 용정리사지와 금강사지 왕후사 등 여러 사지에서 수습한 각종 기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기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코너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신라 수막새, 백제의 영향을 받은 신라 수막새 △중국 육조(六朝) 시기 수막새, 일본 아스카(飛鳥)와 나라(奈良) 시기 수막새 △통일신라 기와, 고려 기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경희대 중앙박물관은 1975년 8월 와당실(瓦當室)을 설치하는 등 오래전부터 기와수집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1000점 이상의 와전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 주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수습된 88점의 고구려 와당은 2005년 9월 '역사의 숨결 가득한 고구려와당' 특별전을 통해 정리되었다. 한편 백제, 신라 및 통일신라 와전은 공개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백제 기와를 정리하여 이번에 기획전을 열게 되었다. 공휴일과 토·일은 휴관한다. (02)961-0141

정혜숙 기자 bwjs@hyunbul.com



연화문 연목와



연화문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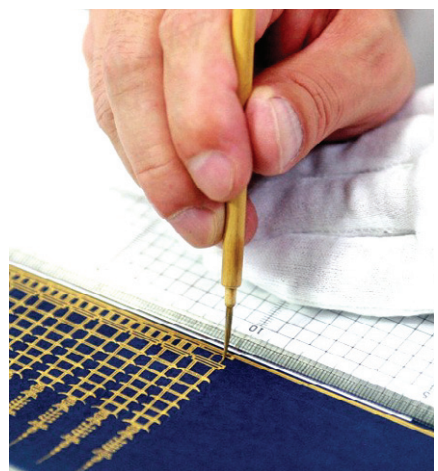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서 사경 강좌 열려

김경호 씨 3월 5일부터 강의

사경이 예술의 전당 강좌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전통사경기능전승자인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은 예술의 전당 서예 아카데미 과정에 '사경반'을 개설, 3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강의한다.

이번 강좌는 사경의 정의, 역사, 종류, 의식, 사경수행의 자세 및 호흡법 등 사경의 총체적인 이론교육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고려 전통사경의 표지, 신장도, 변상도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기수업도 함께 진행된다.

김경호 회장은 "한국 예술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전통사경 강좌가 열린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강좌를 계기로 전통사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4시에 진행된다. 3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이 3월 5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사경강좌를 연다.

김경호 회장은 전북대 국문학과,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금니사경을 계승 한국전통 사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02)580-1657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안상(眼象)→영기창 ㉞

선석사 불단은 영기창 증명



그림 ① 불단과 불상

아직도 '영기창이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창이라는 것, 그 영기창을 통하여 만물이 화생하여 나타나는 것'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다. 고정관념이란 참으로 깨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나 틀린 것이 많은지 모른다.

나는 어느 날 도록에서 선석사 불단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한편 매우 기뻐했다. 마침내 영기창이 우주로 통하는 창이고 영기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 영기창을 통하여 만물이 탄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석탑, 승탑, 불상대좌, 석등, 불단에서 많은 영기창을 보아 왔으며 그 영기창 너머로 무한한 우주 공간이 열려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알아 가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런 영기창을 모든 장르에 배웠을까.

영기창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기단부에 있다. 그리고 그 영기창에서 신장상이라든가 사자모습의 영수(靈獸), 비천, 보살 등이 역시 영기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바로 그 기단부에서 그 위 부분 전체가 화생하는 극적인 장면이다. 즉 불상이나 불탑이나 승탑 등이 영기창을 생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안상이라고 하면 그런 엄청난 광경을 상상할 수 없다. 영기창(靈氣窓)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임으로써 비로소 모든 장르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에 자리 잡은, 세종대왕자 태실의 수호사찰인 선석사(禪石寺) 대웅전의 불단을 찾아갔을 때, 영기창의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결정적 작품을 직감했다.(그림 ①) 각기 다른 영기문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영기창들 안에는 두 용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보인다.(그림 ②-1, 그림 ②-4)

두 용은 보주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려보고

불단 여래와 보살 영기화생 충만한 생명의 조형세계 상정

싶으나 영기창이 뚫린 판자를 떼어내야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삼천대천세계(우주)에 나는 두 용은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상징한다. 즉 용이란 존재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듯이 동물이 아니요, 대생명력을 구상화한 추상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우주에 충만하되 보이지 않는 영기(靈氣), 즉 대생명력을 여러 가지 영기문으로 표현하여 왔으나 현실에 없는 것인데 무엇인지 몰랐다. 이제 그 보이지 않던 영기문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동안 써 왔던 중요한 용어들이 틀렸거나 아예 이름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두 용이 마주 보고 있으나 아마도 몸은 순환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보주를 가운데 두고 두 용이 회전하는 형상이 모든 장르에 많은데, 그

것은 우주에 가득 찬 대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선석사 불단은 우주 그 자체이다. 구태여 말하자면 불단 안에는 영기가, 즉 대생명력이 가득 차 있거나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대생명력을 상징하므로 영기가 충만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불단을 옛 기록에 '佛卓'이라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시대의 작은 불탑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큰 규모로 전개하므로 불단(佛壇)이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단의 넓은 앞면과 양 측면에 갖가지 영기화생하는 극적인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경우에도 영기창에서 만물이 화생하는 광경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가장 밑부분에는 반드시 영기창에서 용이 화생하여 용의 입에서 갖가지 영기문이 양쪽으로 발산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인 물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귀면(鬼面) 혹은

그것을 우리말로 바꾼 도깨비라고 부르니 통탄할 일이다. 그것은 여래를 보고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러한 불단 위에 무량한 여래와 보살이 영기화생하는 것이다. 비록 석가여래와 문수-보현보살 등 석가삼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은 무량한 여래와 보살을 석가삼존으로 대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여래와 보살은 원래 보이지 않는 대생명력, 즉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생명을 구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래와 보살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제 불단과 여래-보살의 상관관계가 분명해 지지 않았는가. 불단과 불상 모두가 생명을 나타낸 조형 세계이다. 불교사상이 바로 '생명존중'의 사상이므로 불교미술의 조형에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 없다. 김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②-1. 좌측 용의 얼굴



그림 ②-2. 우측 용의 얼굴



그림 ②-3. 바닥은 바다의 파도



그림 ②-4. 꼬리 부분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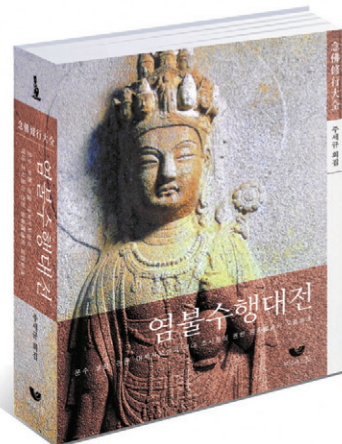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범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을 높이며, 힘 적게 들고 효과 빠르게,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집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생한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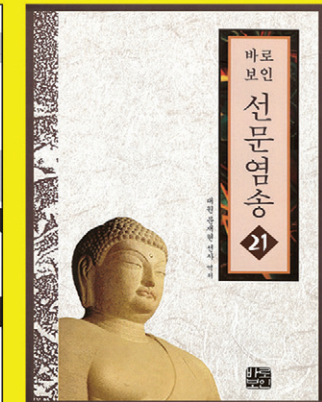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공로소통 buddhapi5@daum.net



조계종 건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공한 33가지



031-534-3373